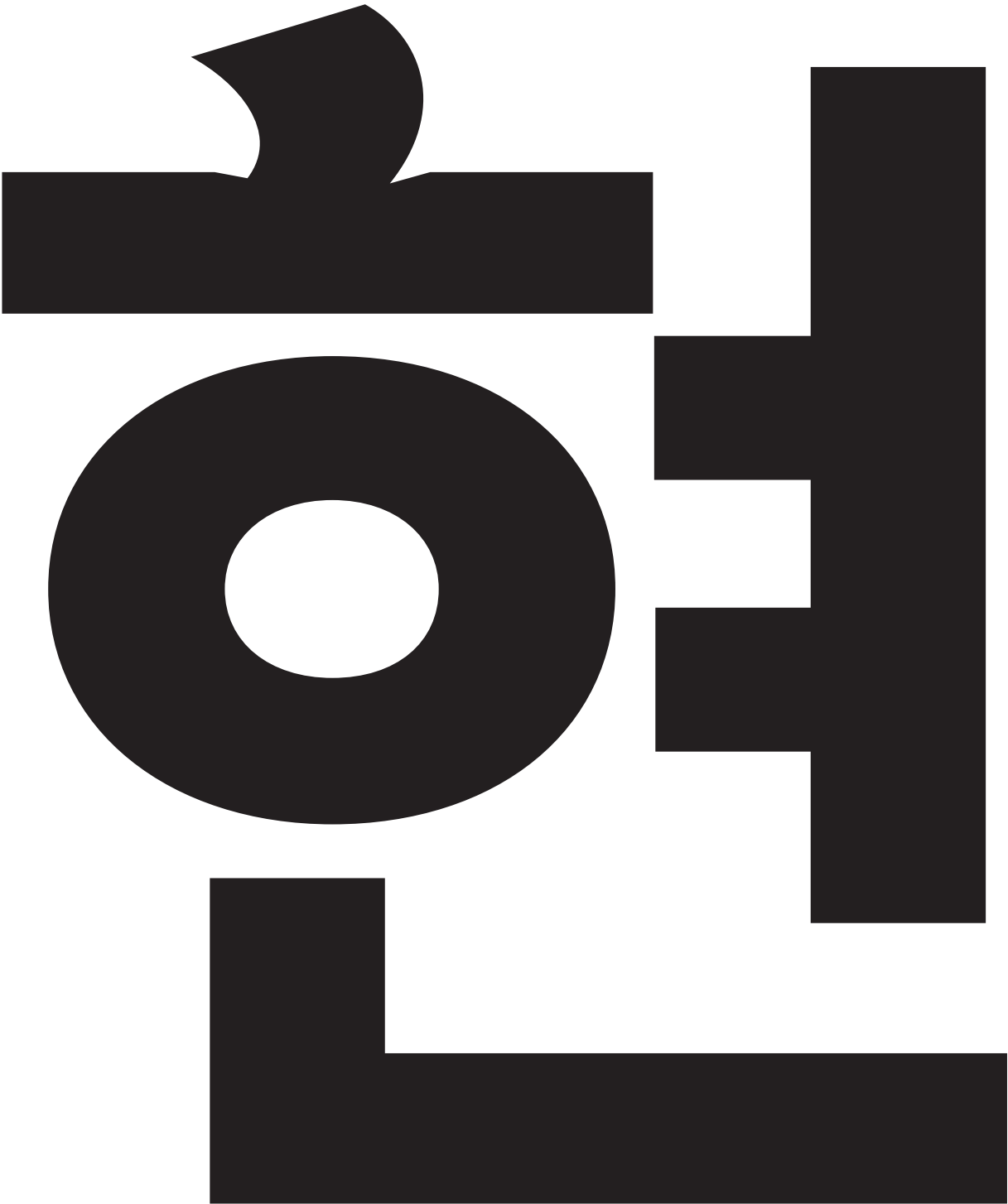




[illegible]

1 Regular

Weight Axis

2 Bold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800

700

600

500

③ Title

Title Axis

2 Bold

variable

타이틀 92PT

알랭 드 보통(1969년 스위스 취리히 출생), 『행복의 건축』, —4. 집, 기억과 이상의 저장소

타이틀 32PT

‘디자인된 물건’은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심리적 또는 도덕적인 태도에 대한 인상을 심어준다. 본질적으로 디자인과 건축 작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내부나 주변에서 가장 어울리는 생활이다. 이 작품들은 그 거주자들에게 장려하고 또 유지하려 하는 어떤 분위기에 관해 말한다.

볼드/레굴러 11PT

3장. 말하는 건물—82쪽 중
건물이나 사물이 물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한곳에 모인 돌, 쇠, 콘크리트, 나무, 유리의 배치가 자신을 표현하는—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묘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하얀 벽 안에 20세기의 추상 조각들을 모아 놓은 미술관에서 우리는 3차원적인 덩어리들이 의미를 얻고 또 전달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는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설비와 주택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지 모른다.

4장. 집 기억과 이상의 저장소—111쪽 중
우리는 우리 환경이 우리가 존중하는 분위기와 관념을 구현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건물이 일종의 심리적 틀처럼 우리를 지탱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유지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필요한 것—그러나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을 위험이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물질적 형태들을 주위에 배치한다. 벽지, 벤치, 그림, 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실존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장소의 전망이 우리의 전망과 부합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해준다면,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는 말로 부르곤 한다.

볼드/레굴러 8PT

작가 | 알랭 드 보통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다. 은행가이며 예술품 수집가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 수석 졸업했다. 스물세 살에 쓴 첫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이어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 앤 텔》에 이르는, 사랑과 인간관계 3부작이 현재까지 2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수많은 독자를 매료시켰다. 자전적 경험과 풍부한 지적 위트를 결합시킨 이 독특한 연애소설들로 그는 '90년대식 스타달', '닥터 러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예술을 아우르며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에세이 《불안》, 《일의 기쁨과 슬픔》, 《여행의 기술》, 《행복의 건축》,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뉴스의 시대》, 《영혼의 미술관》 등을 썼다. 2003년 2월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슈발리에 드 로드르 데자르 에 레트르'라는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유럽 전역의 뛰어난 문장가에게 수여하는 '샤를르 베이옹 유럽 에세이상'을 수상했다. 현재 런던에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 내용에 바탕을 둔 TV 다큐멘터리 제작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

빅뱅의 배경 복사에 의해

The baseline temperature of outer space,

설정된 우주 공간의

as set by the background radiation

from the Big Bang,

기준 온도는 2.7켈빈

(-270.45°C, -454.81°F)입니다.

is 2.7 kelvins(-270.45°C; -454.81°F).

[1] 은하 사이의

[1] The plasma between galaxies is thought to

플라스마 우주에 있는 중입자(일반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 Springtime Delight -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Springtime Delight〉는 ‘봄’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꽃이 가득한 들판, 도심의 화사한 거리들과 같은 봄의 풍경과 봄날의 달콤한 꿈같은 순간들을 테레사 프레이타스만의 따뜻한 파스텔톤(Pastel tone)의 작품을 통해 ‘어느 봄날’의 감성을 담았다.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단순히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작가가 아닌, 실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색채의 풍부함을 고찰하고 소재에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작가이다.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리스본(Lisbon)에서 태어나 포르투갈(Portugal)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며 생동감 있는 상상력을 활용해 자연, 여행, 건축, 꿈 등을 동화같이 혼합하여 연출한다. 그녀의 작품은 마치 파스텔(Pastel)의 화려함으로 가득찬 영화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 Springtime Delight〉은 5가지의 섹션(Section)으로 구성된다. 섹션별로 작가의 시선에서 본 ‘어느 봄날’의 감성이 다양한 키워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부 섹션에서는 작가의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포토존(Photo zone)과 미디어(Midea)가 함께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만개한 ‘어느 봄날’을 선물할 것이다.

섹션(Section) 1 꽃 사이 사이 Among the Flowers
‘봄’하면 떠오르는 ‘꽃’을 주제로 우리를 봄의 들판으로 초대한다. 핑크물리를 포함한 화사하면서 따스한 꽃들과 그 사이를 노니는 듯한 연출을 통해 테레사 프레이타스의 ‘어느 봄날’의 시작을 보여준다. 테레사 프레이타스가 만들어낸 다양한 컨셉(concept)의 꽃 사진들에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공존한다.

섹션(Section)2 봄의 꿈 Spring Dreams
우리 모두는 마음 속에 세상을 그리고, 상상을 한다. 이번 섹션은 테레사 프레이타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으로,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통해 ‘꿈속 봄’의 원더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완벽한 푸른 하늘 위에 하얀 구름을 볼 때마다 르네 마그리트를 떠올린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마그리트를 뽑을 정도로, 그녀의 꿈 같은 파스텔 세계는 그 연출 방법에 있어 마그리트에 큰 영향을 받았다.

섹션(Section) 3 홈 그리고 컬러 At Home, In Colour
테레사 프레이타스의 고향인 포르투갈의 전경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격리라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의 답답한 마음과는 다르게 사진의 색감은 평화롭고 포근하며, 오래 알고 지내던 모습을 사진에 담아낸 만큼 작가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따뜻한 날씨와 동시에 차분한 느낌이 들어 정지된 영화의 씬(Scene)을 연상시킨다.

섹션(Section) 4 도시의 봄 Spring in the City
‘도시의 봄’은 특별하다. 모두 같은 봄이지만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도시의 전경은 매순간 새롭다.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빛과 파스텔 색감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미묘하게 현실과 초현실 사이 어딘가에서 방향하게 만든다. 존재하는 곳이지만 실재하지 않은 것 같은 공간이다. 테레사 프레이타스에게 있어 여행은 영감을 주는 중요한 소재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는 그녀의 제2의 고향이며, 작품 활동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되었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이다.

섹션(Section) 5 라 무라야 로하 La Muralla Roja
건축가 리카르도 보필이 설계하고 스페인 칼페에 위치한 포스트모던 스타일(Postmodern Style)의 아파트 ‘라 무라야 로하’는 많은 포토그래퍼(Photographer)들이 사랑하는 공간이다. 기하학적인 형태와 특유의 색감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라 무라야 로하’를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 무라야 로하’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에 등장하는 세트장과 흡사하여 재조명 되기도 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실제로 ‘라 무라야 로하’를 방문한 것 같은 포토존(Photo zone)이 연출되었다.

String

[illegible]

2 Bold

gg gg gg gg gg gg gg gg gg gg

500

2 Bold

TITLE 92PT

Alain de Botton (Born in 1969), The Architecture of Happiness, —4. House...

TITLE 32PT

Any object of design will give off an impression of the psychological and moral attitudes it supports. In essence, what works of design and architecture talk to us about is the kind of life that would most appropriately unfold within and around them. They tell us of cer-

BOLD/REGULAR 11PT

3. Talking Buildings
If our interest in buildings and objects is indeed determined as much by what they say to us as by how they perform their material functions, it is worth elaborating on the curious process by which arrangements of stone, steel, concrete, wood and glass seem able to express themselves—and can on rare occasions leave us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talking to us about significant and touching things.

4. Ideals of Home
We depend on our surroundings obliquely to embody the moods and ideas we respect and then to remind us of them. We look to our buildings to hold us, like a kind of psychological mould, to a helpful vision of ourselves. We arrange around us material forms which communicate to us what we need—but are at constant risk of forgetting we need—within. We turn to wallpaper, benches, paintings and streets to staunch the disappearance of our true selves. In turn, those places whose outlook matches and legitimates our own, we tend to honour with the term ‘home’. Our homes do not have to offer us permanent occupancy or store our clothes to merit the name. To speak of home in relation to a building is simply to recognise its harmony with ...

BOLD/REGULAR 8PT

Author | Alain de Botton
Alain de Botton (born 20 December 1969) is a Swiss-born British philosopher and author. His books discuss various contemporary subjects and themes, emphasizing philosophy’s relevance to everyday life. He published *Essays in Love* (1993), which went on to sell two million copies. Other bestsellers include *How Proust Can Change Your Life* (1997), *Status Anxiety* (2004) and *The Architecture of Happiness* (2006).
He co-founded *The School of Life* in 2008 and *Living Architecture* in 2009. In 2015, he was awarded “The Fellowship of Schopenhauer”, an annual writers’ award from the Melbourne Writers Festival, for that work.
De Botton was born in Zürich, the son of Jacqueline (née Burgauer) and Gilbert de Botton. Gilbert was born in Alexandria, Egypt, but after being expelled under Nasser, he went to live and work in Switzerland, where he co-founded an investment firm, Global Asset Management; his family was estimated to have been worth £234 million in 1999.
Alain de Botton’s Swiss-born mother was Ashkenazi, and his father was from a ...

Letterspace.

Amsterdam

암스테르담

Zeeburgerpad 51h
1019 AB Amsterdam

Letterspace (레터스페이스) is new platform situated in Amsterdam Oost, and as of 2018 is hosting a monthly series of lectures about experiment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in type. As hosts, we are interested in expanding more traditional definitions of type (design) established within education programmes and institutions. We are excited to welcome a lively and diverse group of artists, designers and researchers to explore type happening in Amsterdam.

The lectures are open to the public and free. Experts, non-experts, type enthusiasts, writers, design students might be especially interested in joining.

Contact
Studio

Supported by: Pictoright Fonds



02. SEP 2020
18:30 – 20:30 at Noorderpark

PICNIC

피크닉

After the last press-conference of the government and having an eye on the climbing CoViD-19 (코로나19) infections in Amsterdam, we decided to cancel our fall season at letterspace. Even though we really enjoy all things involved in organising these lectures and we are missing you all, we don't find our informal gatherings important enough to put anyone at risk. Since we would like to catch-up with you all, we came up with the idea of a picnic in the park, where we can follow safety measures and everyone can bring their own snacks and blanket.

We will provide bottled beverages and hand-sanitiser for everyone. Since sharing food is not advised by the RIMV it's best to bring your own food and a picnic blanket. There are public BBQ's in Noorderpark (누더파크), we will bring one as well and the coal, in case you'd like to put something on the fire. There is a variety of supermarkets on the way to Noorderpark, in case you'd like to pick something up.

DIRECTIONS

PUBILC TRANSPORT: take Metro 52 in direction of Noord. Exit at Noorderpark. Exit the station to your right and take the stairs to underpass the street to your left. Follow Adelaarsweg and take the pedestrian entrance opposite of Merelstraat.
BIKE: take any ferry going to No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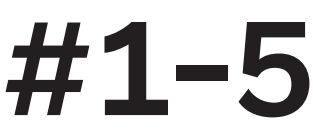
16. MAY 2018
18:30 – 20:30 at letterspace.amsterdam

LAURA MESEGUER & KRISTYAN SARKIS

A TYPOGRAPHIC MAGHRIBI TRIALOGUE
타이포그래피 마그라비 시험판

Since more than a decade, the Amsterdam based Khatt Foundation matches designers from different cultures to develop multilingual typographical systems (다국어 타이포그래피 시스템). The most recent Matchmaking 3.0 in Maghrib, combined (among others) the powers of two TypeMedia alumni that both presently live and work in Amsterdam. Laura Meseguer and Kristyan Sarkis will offer insight into the Typographic Machtmaking project and present their result: the TDC award-winning trilingual typeface Qandus.

In the Maghreb(마그레브, 아프리카 지역), the confluence of native cultures with different colonial periods has produced an extraordinarily diverse heritage. The history of this region and the Andalus (안달루스) could be told in more than twenty languages and written in any of the three common writing systems: Latin, Arabic and Tifnagh (라틴, 아라비아, 티피나그 문자). From this context the Typographic Matchmaking in the Maghrib Project of the Khatt Foundation came into being as a way to facilitate a cultural trialogue, as well as shed a typographic spotlight on the largely ignored writing and design traditions of the region. The specific goal of the collaboration i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ri-script font families that can communicate harmoniously. The project created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between the members of all the



20. JUN 2018
18:30 – 20:30 at letterspace.amsterdam

DAVID BENNEWITH

APPROACHES TO THE TYPEFACE DESIGN OF INUKTITUT SYLLABICS
이누크티투트어의 글꼴 디자인적 접근

Within the context of an oversaturated market and automated tools, type designers must now reflect on the ways they can bring something innovative or of value to the world. It now seems like a pivotal time to widen the field and to consider type systems that have been overlooked or underdeveloped. Therefore we are happy to invite David Bennewith, who will present his research into a selection of font products for Inuktitut syllabics (이누크티투트어). David runs the studio Colophon and is head of the Graphic Design Department at the Gerrit rietveld Academy Amsterdam.

In early 2000, the Unicode Consortium (유니코드 컨소시엄) published the USAC (Unified Canadian Aboriginal Syllabics 통합 캐나다 원주민 음절표) standard. This standard constitutes a set of “code points” comprising single characters of the whole set needed to reproduce Inuktitut syllabics, among other Canadian Aboriginal languages. Derived from phonetic analysis, Inuktitut was conceived to make the Inuit language visible in an easy to learn and comprehensible way. As a result, Inuktitut syllabics were readily adopted and popularised by many Inuit. Over the years, Inuktitut syllabics have become a co-official script (along with a version using Latin orthography) in Nunavut (누나부트, 캐나다), the northern-most territory of Canada. In the digital age, type design software, font products, and